

등돌린 ‘팬心’에도 100만 관중은 넘졌다

KIA 2025 시즌 결산

〈6〉수치는 줄었지만 온도는 식지않았다

시즌 관중 1천200만명 돌파 불구 10개 구단 중 유일한 감소 주말 매진율 60%, 평균 1만8천 관중…‘브랜드’ 파워는 여전 박수와 함성은 ‘…ing’ 결과보다는 동행, 이제 KIA가 답할때



2025 프로야구는 리그 전체가 흥행 신기록을 갈아치운 해였다. 올 시즌 누적 관중은 총 1천201만9천267명(평균 1만7천97명)을 기록했다. 이는 프로야구 출범 44년 만에 처음으로 시즌 관중 1천200만명을 돌파한 수치다. 그런데 KIA 타이거즈는 달랐다.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관중이 줄었다. 지난해 총 1백25만9천249명(평균 1만7천250명) 대비 약 14% 감소한 1백7만9천767명(평균 1만5천207명)이다. 성적 부진과 경기력 하락의 여파가 컸다. 그렇다고 ‘감소’라는 단어 하나로 올해 챔피언스필드를 설명하기 어렵다. 성적과 무관하게 곳곳이 팀을 지지하는 열기도 확인했기 때문이다. KIA는 2년 연속 1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자존심을 지켰다. 특히 주말 흥행은 견고했다. 주말 평균 입장객은 1만8천878명. 리그 평균(1만9천146명)과 268명 차이에 불과했다. 평일 대비로는 5천100여명, 약 40% 많은 수준이다. 주말만큼은 브랜드 파워가 제 역할을 했다. 주말 매진 행진도 꾸준했다. 총 20차례 주말 홈경기 중 12경기가 매진돼 매진율은 60%에 달했다. 리그 평균(65.7%)에는 못 미쳤지만, 중위권 수준은 유지했다. 개막 직후부터 5월까지의 사실상 ‘만원’이었다. 포화 인원인 2만500명이 연일 입장하며 디펜딩 챔피언의 인기를 입증했다. 숨이 조금 가빠진 건 8월 이후다. 순위 하락과 폭염이 겹치며 주말 평균이 1만7천명대로 내려앉았다. 일정 변수도 타격을 줬다. 주말 일정이 조정되면서 자연스레 관람 수요가 줄었다. 4월·5월·7월 각각 1경기, 8월 2경기 등 총 5경기가 우천 취소되며 9월 이후 평일 일정으로 재편됐다. 주말 일정이 온전히 유지됐다면, 매진률은 더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 운이 따르지 않았고, 달력마저 불리했다. 그럼에도 팬층의 지지력은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 가을야구가 멀어진 뒤에도 주말 평균 1만5천명 이상을 유지했다. 평일 역시 9월 이후 하락폭이 컸지만, 시즌 전체 평일 평균은 1만3천명 선을 방어했다.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에는 1만7천여 명이 입장했다. 결과보다 동행을 택했다. 성적 하락에도 온도는 꺼지지 않았다. 그들의 발걸음은 KIA 야구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리그 막판까지 이어진 팬심은 단순한 응원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팀에 대한 믿음이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신호였다. 모두가 끝까지 선수들을 연호하며 힘을 불어넣었다. 박수와 함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 열정에 답하는 것, 그것이 내년 KIA의 몫이다. 올해 챔피언스필드 관중 기록은 숫자보다 마음으로 남았다. /주홍철 기자



지난 7월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응원타율을 활용해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근대4종 전용태·레슬링 이재혁 ‘2관왕’



고향의 명예를 걸고 전국체전 무대에서 열정과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광주·전남 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선수단은 21일 부산체육관에서 열린 근대4종 계주에서 ‘간판 스타’ 전용태를 선봉으로 성진수·윤상민(이상 광주시청)이 출전해 1천151점을 획득, 2위 대전(1천150점)을 1점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합작했다. 앞서 근대4종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용태는 대회 2관왕 2연패를 달성했다. 스쿼시 여U18 박솔민(동일미래고), 유도 여U18 -57kg급 조효진(광주체고), 남U18 -100kg급 신민성(광주체고)도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 불링은 남자일반부와 남U18에서 각각 금빛 남보를 전했다. 김건우·방기환·이재원·조민혁·조찬호(이상 광주일반)로 팀을 꾸린 남자일반부는 4천678점을 합작하며 1위를, 박승현·윤지훈·표재은·김성혁·강다운(이상 광주체고)·민도을(첨단고)이 호흡을 맞춘 남U18은 4천282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레슬링에서는 남자일반부 F86kg급 이경연(국군체육부대)과 F97kg급 이재혁(광주체고)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18일 열린 레슬링 남U18 G97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던 이재혁은 대회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단체종목에서는 ‘검도 명가’ 서석교가 남U18 단체전에서 전복을 4대1로 꺾고 2회전에 진출했고, 소프트테니스 여U18 단체전에 출전한 서진여고는 순천여고를 4대0으로 제압, 동메달을 확보했다. 전남선수단은 스쿼시 남U18 개인전에 출전한 이종혁(나주선발)과 육상 여U18 세단뛰기 서예지(광양하이텍고)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2.22m로 1위를 차지한 서예지는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시범종목으로 열린 사이클 여자일반부 단체스프린터에서는 나윤서·김수빈·김하은·남정임·이효민(전남선발)이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전남은 이날 열린 복싱에서 무더기 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복싱의 미래를 밝게 했다. 남U18 라이트플라이급 정광진(전남체고),

광주…스쿼시 박솔민, 유도 조효진·신민성 ‘金남보’ 전남…스쿼시 이종혁 ‘金’·세단뛰기 서예지 ‘2연패’



21일 부산체육관에서 열린 근대4종 계주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성진수, 전용태, 윤상민

〈광주시체육회 제공〉



단체스프린터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전남선발 원복부터 나윤서, 김하은, 김수빈

〈전남도체육회 제공〉

플라이급 최준원(기술과학고)이 준결승에서 권중찬(대전)과 허균(경북)을 각각 5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 금메달에 도전한다. 밴텀급 김대호(기술과학고), 라이트급 임유빈(전남체고)은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시범종목으로 열린 여U18 플라이급 장시는(전남체고), 여자일반부 플라이급 박초롱(화순군청), 라이트급 안예지(화순군청)도 준결승전을 넘어 결승무대에 오른다. 여U18 라이트급 김예린(전남체고)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단체종목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럭비 남자일반부 한국전력, 야구 남자일반부 목포대, 하키 여자일반부 목포시청, 핸드볼 여U18 무안고, 소프트테니스 여자일반부 전남도청 각각 4점에 진출, 동메달을 확보했다. 배구 남자대학부에 출전한 목포대는 준결승전에서 인하대에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박희중 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광주 대표 비오신코리아(주) 격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 19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배구경기가 열린 부산 동서대학교를 찾아 광주 대표로 출전한 비오신코리아(주)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2020년 9월 창단한 비오신코리아(주)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광주 대표로 전국체전에 참가해온 지역 내 유일한 실업 배구팀이다. 2021년과 2022년 신협중앙회장배 한국실업배구연맹전 준우승, 2025 한국실업배구연맹전 충청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팀이다. 비오신코리아(주)는 이번 체전 1회전에서 전북선발을 3대0으로 꺾고 2회전에 올랐으나 강호 경남대표(국군체육부대)를 맞아 아쉽게 패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박희중 기자

광남일보·해피니스오픈 24일 개막

초대 챔피언 ‘강진 청자’ 우승 트로피·한국의미 살린 그린자켓

광남일보와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이 주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광남일보·해피니스 오픈이 오는 24일 나주시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올해로 개장 16주년을 맞이한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진출입 교통이 편리한 골프장으로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27홀, 67백식 규모의 골프텔을 갖춘 명문 클럽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은 2021년 ‘KPGA bizplay 전자신문 오픈’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이번 2025년 KLPGA 대회를 유치, 남녀 프로 대회를 모두 개최한 전문 골프 코스로서의 명성과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대회를 주최하는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은 이번 대회 초대 우승자를 기리기 위해 전통을 살린 ‘강진 청자’ 우승 트로피와 대표 한복 브랜드인 ‘베를한복’이 제작한 한국의미를 살린 그린자켓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남일보 해피니스 오픈은 광주, 전남 지역 골프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갤러리를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마련했다. 티켓(1일/1만 원) 구매자에게는 스크래치 복권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입장 티켓은 온라인, 그리고 현장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갤러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갤러



리 주차장으로 개장한다. 아울러 골프장 내 마련된 갤러리 플라자에서는 다양한 푸드트럭을 다양한 휴식 공간도 마련한다. 차재진 해피니스 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잠시나마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참가선수들과 방문객 모두에게 최상의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와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를 통해 매 라운드 생중계된다. /박희중 기자